

해외의약뉴스

환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의약품 과다복용의 위험

개요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포장지에 기재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위험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중요한 것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워드

일반의약품, 활성성분, 과다복용, 약 라벨

많은 환자들이 일반의약품 포장지에 기재된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을 읽지 않아 위험에 놓여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진은 일반 소비자와 일부 의학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일반의약품 포장지에 기재된 확인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두 그룹 모두에게 같은 성분을 포함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약을 제공했고, 일부 의학지식을 가진 그룹은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카트린 박사는 “많은 소비자들이 뜻하지 않게 일반의약품을 두 배 또는 그 이상 복용하여 위험에 처할 지도 모른다며, 환자들은 실수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해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오랜 기간 사람들이 의약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관찰했고, 공중보건과 일반의약품 라벨링을 위한 가치 있는 통찰력(insight)을 얻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FDA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카트린박사는 이번 연구결과가 환자들에게 일반의약품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언급하며, “불행하게도,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 활성성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들은 현재 그들의 가치 있는 약물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트린박사는 “모든 의료관리 전문가들처럼 약사들은 약 라벨에 기재된 사항들을 읽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비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더불어 동일한 성분의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면, 일반적으

로 안전한 의약품이더라도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조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몇몇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원문정보 ■

<http://www.pharmacytimes.com/news/many-patients-unaware-of-otc-drug-overdose-risks>